

2022 지구촌 교회

가정예배순서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Sharing Jesus!

VOL.14
2022 09-10

야곱과 에서의 재회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복음성가

지 348장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1-17

- 0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 02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 0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 04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 0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 06 그 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 07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 08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 09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 10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 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심이니이다
- 11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 12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 13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 14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 15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 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 16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 17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1.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여 자기 소유를 두 떼로 나누어 앞서 보내며 자신은 맨 뒤에 남았던 야곱이 이제 가장 앞으로 나아갑니다(3절).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야곱은 스스로를 내려놓고 자신의 힘겹게 이룬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이렇듯 화해를 위해서는 숨지 말아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만 합니다. 에서를 마주한 야곱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힙니다.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상대를 위해 내 몸을 낮추고 낮추며 또 낮췄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낮추려 해서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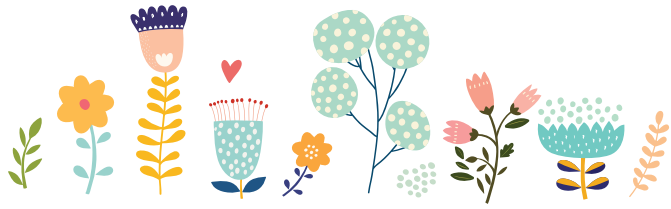
2.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의 반응은 감동적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서는 야곱과 함께 울었습니다(4절). 피의 복수가 될 뻔한 이 만남이 달라진 야곱의 대응으로 인하여 감격적인 형제의 상봉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자신을 낮추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자, 에서는 야곱을 향해 가지고 있던 미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동생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 대신에 성숙한 사람이 먼저 내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 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차오르게 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사과하는 방식은 어떠 한가요? 우리 가족 중에 사과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셉의 꿈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1-11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성가

지 447장
내 삶의 소망

- 01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 0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 0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 0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 0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 0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은 꿈을 들으시오
- 0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 08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 0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 10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꾸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 11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채색옷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보기에 요셉은 알미운 존재였습니다. 특히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여 형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가족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편애와 미움이 생기면 반드시 문제로 연결됩니다.

2.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꿈은 모두 자신은 주목받고 형제들과 심지어 부모님들까지 자신에게 절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요셉은 있는 그대로 생생한 꿈을 전달한 것이지만 이야기를 전해 들은 형들의 마음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야곱은 진지하게 요셉의 꿈을 받아주었습니다. 가정은 자신의 꿈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만약 요셉의 형들 중 한 명이었다면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시련을 먹고 자라는 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복음성가

기꺼이 주께

-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 19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 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 21 르우벤이 들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던대
-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 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 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 28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 29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 30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 31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 32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 33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 34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 35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 36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1.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형제들은 멀리서도 요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 습니다. 그것은 형제들 중 유일하게 요셉만이 값비싼 채색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 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유독 사랑했기에 그에게 만 예쁜 채색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두 번이나 자신이 꾸었던 꿈을 자랑합니다. 장차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은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고 맙니다. 이렇듯 요셉의 꿈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 셉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도 시 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오히려 시련을 먹고 자라납니다. 어떠한 시련과 위기도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시련과 위 기가 하나님의 꿈을 더욱 자라나게 합니다.

2.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린 불의한 일을 감추기 위해, 요셉의 채색옷에 숫염 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데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피 묻 은 옷을 받아든 야곱은 그것을 부여잡고 울며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그의 불의한 과거를 떠오르게 합니다. 지난날 자신이 죽인 짐승과 옷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의 모습 말입니 다.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 했다면, 하나님은 그 런 그의 불의와 거짓을 바로잡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처럼 하나님은 일점일획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꿈을 의로운 방법으로 이루 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시련을 만나고 있지 않나요? 혹은 나에게 야곱처럼 불의한 방법 으로 그 꿈을 이루려는 조금의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본문 속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 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실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요셉의 형통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복음성가

지 187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1-6

- 0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 0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 0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 0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 0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 0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1.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곁에 계십니다. 고난이 계속됨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형통함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받은 요셉은 금세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리, 가정과 일터, 또 만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의 형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 요셉의 이야기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때로는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예기치 않은 고난의 삶에도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애써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꾸준함이,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성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가정과 일터, 만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의 형통함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복음성가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25-34

-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1. 염려는 인간의 당연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음식이나 의복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을 보면, 그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엿보입니다. ‘하물며’(30절)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새나 꽃보다 더 소중하게 돌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물며’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 사람은 살면서 저마다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며 우선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가 기도의 핵심내용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 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보다 나의 필요로 향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늘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길 때 내 마음과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비판하지 말라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복음성가

지 54장
나의 가는 길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1-6

- 0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 0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 0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 0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 0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 0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1. 예수님은 비판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던진 비판의 말이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별력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2. 남의 잘못이 보일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혹시 나에게는 그런 잘못이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의 죄는 쉽게 발견하고 나의 죄는 잘 깨닫지 못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을 제거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고치려고 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졌을 때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내 모습이 먼저 바르고 정직해야 나의 말과 내가 전한 복음도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들보는 옛날 기와집의 대들보와 같이 큰 기둥입니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던 나의 들보는 무엇인지 가족들과 조심스럽게 나누어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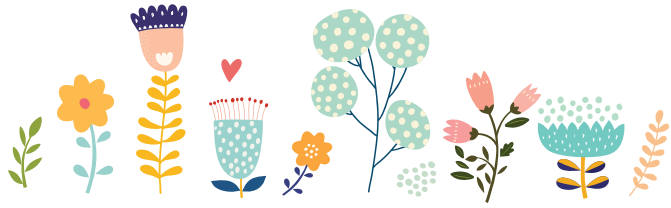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복음성가

지 259장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7-14

- 0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0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 0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자녀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기도는 자녀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만큼은 끔찍한 사랑을 보이는 법입니다. 하물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시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누구든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두 개의 문을 만나게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것입니다.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대세와 주류에 가담하지 않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주어진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는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최근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나 고민은 무엇인가요? 가족들과 함께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복음성가

지 411장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15-23

-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이리라
-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나무 같지만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다가 오지만 사실은 목숨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리와 같습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할 뿐만 아니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실천과 온전한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거짓된 것을 구별해 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영적 민감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입술의 고백과 동일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가다듬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2.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에 합당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거나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오해를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에도, 신앙의 공동체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뜻에 따라 행하는 행위들이 많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결단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복음성가

지339장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24-29

-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 함일러라





1.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특별한 설교의 결론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너무 귀한 가르침을 말씀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땅속에 단단한 바위가 있는지를 찾아야 하고 그렇게 찾은 바위에 구멍을 내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많은 수고가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흙 위에 집을 짓고 홍수가 나서 무너지면 다시 짓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위를 찾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힘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가정 예배가 교회에 끼치는 영향



가정 예배가 교회에 끼치는 가장 큰 영향은 교회를 위한 가정의 기도가 응답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교회를 위하여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의 저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과 간절한 소원」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한 결과, 그 유익은 성도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목사가 힘 있게 사역하게 하며 마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실하며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가족과 함께 기도할 때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잠14:31] 가난한 사람을 확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는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우주적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날 우리는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성도들이 중보 기도한 응답을 우리가 받았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롬12:15) 울도록 훈련시킵니다.

가정예배는 교회가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사항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전12: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가정예배를 통한 기도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사명을 위해 수고할 때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가정 덕분에 선교사와 선교단체들은 하나님께 보다 칭찬 듣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기도의 의무와 특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이 열심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교회는 이미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는 목회자의 몫이 아니고 성도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저자: 제임스 W. 알렉산더 미션월드)의 내용을 요약하여 가정예배의 축복을 연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정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웃
을 섬기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을 존경하며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사랑하는 **자녀이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녀이름**가 어디로 가
든지 **자녀이름**의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름**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1:9]
자녀이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이름**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
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이름**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좋은신 하나님~
제가 너무 귀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감사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주시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 각 가정에서 회개, 레위, 닐시, 미션, 라파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